

##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

- 문학적 인유 이론으로 분석한 다니엘 1-2장의 창세기 10-11장 사용

김대웅\*

### 들어가는 말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바벨론 제국에 우거했던 유대인 포로들의 세계관 수립 및 자기 정체성 인식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이 신학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 창세기를 해석하여 사용한 방식들을 분석한다.<sup>1)</sup> 그는 다니엘 1장과 2장에서 문학적 인유를 통하여 유대인 포로 독자/청중으로 하여금 창세기 10장의 니므롯 기사 및 11장의 바벨탑 기사와 그 교훈을 상기시켰고, 그럼으로써 홍수 이후 바벨에서 인류가 저지른 반역에 관한 성경의 역사 서술을 통해 주전 6세기 바벨론이 유린한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이해시켰다. 창세기의 그 두

---

\* 총신대학교, 구약학

- 1) 다니엘서 저자로서 다니엘 및 주전 6세기 기록 연대는 다니엘서의 여러 내적 증거에 일치한다(단 1:3; 10:1; 12:5-13; 참조. 마태 24:15; 마가 13:14). 다니엘은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을 기록하였다(John Calvin, *Book of the Prophet Daniel* Vol 1, Thomas Myers, tran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3], 77-82). 역사 비평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 중엽 마카비 항쟁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기존 서사 부분에 묵시 부분이 추가되어 최종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마카비 가설에 대한 비평은 Edwin M. Yamauchi, "Hermeneutical Issues in the Book of Daniel," *JETS* 23:1 (1980), 13-21; Stephen. R. Miller, *Daniel*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22-43; Andrew E. Steinmann, *Daniel*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8), 1-19.

본문들은 다니엘 1장과 2장의 서사와 긴밀한 소통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니엘 및 바벨론의 유대인 독자/청중의 현실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논자는 다니엘서 첫 두 장에 사용된 문학적 인유의 형태와 역할을 조명한 후,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창세기 본문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는지 제시할 것이다. 우선 논자는 문학적 인유를 간략히 소개한 후,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한 인유 분석 필요성과 그 절차를 제시하겠다. 그 다음 이 절차에 따라 다니엘 1장과 2장의 인유를 해석함으로써 포로기 바벨론 지역 유대인들의 신앙과 현실 이해가 그들의 성경 해석 위에 굳건히 근거했음을 입증하겠다.

## 1. 문학적 인유(引喻, allusion)<sup>2)</sup>

저자와 기원이 다른 본문들이 왜 여러 가지 유사성을 띠는 것일까? 본문 간 유사성은 누군가 의도했기 때문일까 혹은 우연의 결과일까? 의도된 것이라면 과연 독자는 여러 관련된 본문들을 어떻게 읽어야 좋은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 문학비평가들은 상호본문성, 영향, 반향, 인용, 모방(mimesis), 표절, 사용, 인유 등 다양한 술어들을 도입했다. 성서학자들은 미드라쉬, 성경 내적 해석/주석/인유 같은 특화된 범주들을 추가했다.<sup>3)</sup> 그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특정 본문 간 의도

2) 본 장은 다른 곳에 발표된 논자의 글에 기초하였다(김대웅,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니므롯의 바벨탑: 다니엘서 제3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 인유,” 『한국개혁신학』 45 [2015], 181-184).

3) 문학 일반 연구는 Jay Clayton and Eric Rothstein eds., *Influence and Intertextuality in Literary Histor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1); Heinrich F. Plett, ed., *Intertextuality*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성서학 분야 연구는 Martin Jan Mulder and Harry Sysling, eds.,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sen:

된 관련성이 실제로 어떤 고유한 특징을 지녔는지 규명하지 않은 채, 개념차이가 뚜렷한 술어들을 무분별하게 교호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에 빠지고 말았다.<sup>4)</sup> 특히, ‘상호본문성’은 본문간 다양한 관계들을 획일화 시키 가리키는 용어(‘blanket term’)로 오용되기도 한다. ‘상호본문성’은 본래 1966년 불가리아 출신 프랑스 사상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러시아 문학비평가 미하일 바흐찐(Mikhail M. Bakhtin)의 본문간 대화 개념을 설명하며 창안한 용어다.<sup>5)</sup> 방법론적 관점에서 ‘상호본문성’은 본문들의 유사성들을 공식적으로 다루기에 유익하지만,<sup>6)</sup> 그들간 의존이나 사용의 방향 문제를 통시적으로 다루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함을 연구자들이 간과한다. 상호본문성에 기반한 최근의 일부 성경 해석은 저자의 의도라는 핵심 과제를 편리하게 회피하곤 한다.<sup>7)</sup> 그렇다면 문학적 인유는 어떤가? 상호본문성 이론이 관련된 본문들로 독자가 생산하는 의미에 주요 관심을 기울인다면, 인유 이론은 본문간 상관성을 통해 추론되는 저자의 의도 분석에 치중한다.<sup>8)</sup> 그래서 인유 연구자들은 먼저 본문들간 유사성이 본문의 저자가 기존 본문을 신중히

---

Van Gorcum, 1988); Sipke Draisma, 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r of Bas van Iersel* (Kampen: Uitgeversmaatschappij J.H. Kok, 1989); G.K. Beal and D.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4) Tom Furniss and Michael Bath, *Reading Poetry: An Introduction* (London: Prentice Hall, 1996), 323-4; Richard L. Schultz, *The Search for Quotation: Verbal Parallels in the Prophe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216; Matthias Henze, “The Use of Scripture in the Book of Daniel,” Matthias Henze ed., *A Compan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12), 280.
- 5) Julia Kristeva, “Word, Dialogue and Novel,” Toril Moi ed., *The Kristeva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37.
- 6) Benjamin D. Sommer, “Exegesis, Allusion and Intertextuality in the Hebrew Bible: A Response to Lyle Eslinger,” *VT* 46:4 (1996): 486-7.
- 7) Robert Alter, *The Pleasures of Reading: In an Ideological Ag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9), 112.
- 8) Cynthia Edenburg, “How (Not) to Murder a King: Variations on a Theme in 1 Sam 24:26,” *SJOT* 12:1 (1998), 66.

사용한 결과인지 혹은 각 본문의 저자가 동일 자료를 우연히 공유한 현상인지를 질문한다. 만약 저자가 본문들 간 특수한 연관성을 설계한 것이 분명하다면, 인유 연구자들은 저자가 기존 작품(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독자/청중과 소통한 구체적 내용 및 그들의 이해 과정에 간접한 방식들에 천착한다.

논자는 다니엘서와 창세기를 함께 읽기 위해 문학적 인유 이론을 채택한다.<sup>9)</sup> 여기서 인유는 무언의 지시인 ‘암시’가 아니다. 영문학자 어얼 마이너(Earl Miner)의 고전적 정의를 보면, 인유는 저자가 과거나 동시대 본문에서 확인될 수 있는 요소를 자기 작품에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서술 기법이다.<sup>10)</sup> 이때 저자는 자신의 글과 인유된 작품 사이에 언어적 상관뿐만 아니라 관념적 호응도 설계하기 때문에, 독자는 그 작품을 본래 형태로 알고 있어야 한다.<sup>11)</sup> 논자는 여러 인유 이론들 중에서 1968년 창립 이래 구약 성경의 문학적 해석을 주도해 온 이스라엘 텔-아비브 학파의 일원 지바 벤-포랏(Ziva Ben-Porat)의 모델을 선택한다.<sup>12)</sup> 인유의 형식과 기능을 강조한 벤-포랏의 이론은 인유 연구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에 따르면 문학적 인유는 “본문들을 연결하는 장치”이며,<sup>13)</sup> “두 본문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장치다. 이 활성화는(독자

9) Daewoong Kim,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Daniel,” Ph.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2013), 5-37. 인유 이론을 통한 또 다른 다니엘서 분석은 G. Brooke Lester, “Daniel Evokes Isaiah: The Rule of the Nations in Apocalyptic Allusion-Narrative,”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6).

10) Earl Miner, “Allusion,” T. V. F. Brogan ed., *The New Princeton Handbook of Poetic Term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13.

11) Miner, “Allusion,” 14.

12) 이 학파에 관하여 Alan Mints, “On the Tel Aviv School of Poetics,” *Prooftexts* 4:3 (1984), 215-35. 인유 이론 연구사에 관하여 Joseph Pucci, *The Full Knowing Reader: Allusion and the Power of the Reader in the Western Literary Tra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8), 3-48.

13) Ziva Ben-Porat, “The Poetics of Allusion—A Text Linking Device—In Different Media of Communication (Literature versus Advertising and Journalism),” Seymour Chatman eds., *A Semiotic Landscape: Proceedings of the First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Milan, June 1974* (Hague: Mouton,

가) 특수한 신호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이뤄진다. (단순하거나 복잡한) 이 신호는 한 본문에 내장되며, 거기서 ‘더 큰 대상’을 지시한다. 이렇게 지시되는 대상은 언제나 신호를 내장한 본문 외부에 존재하는 별개 본문이다. 신호를 매개로 상호 연결된 두 본문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두 본문의 요소들이 상호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들을 생산한다. 이 의미들은 두 본문의 활성화 이후에만 비로소 확인될 수 있다.”<sup>14)</sup> 여기서 두 본문의 동시적 활성화란 독자의 의식에서 두 본문과 두 문맥이 서로 연관된 단일체로 파악되는 것을 뜻한다. 독자는 저자가 설계한 인유 신호를 통해 각 신호가 속한 두 본문을 단일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두 본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의미 있게 결합시킴으로써 다양한 의미들을 만든다.

논자는 문학적 인유를 통해 독자가 다니엘서와 창세기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과정을 다음 세 단계로 제시하겠다.<sup>15)</sup> 1) 주요 인유 신호 확인. 인유를 알리는 신호는 환기되는 선행 본문 속 ‘대상 표지’(marked)와 후행 본문 속 ‘지향 표지’(marker)로 나뉘지며, 이 표지들은 음성학적, 형태론적, 구문론적, 의미론적 관련을 통해 독자에게 식별된다. 형태론적으로 인유 신호들은 동일하거나 변형을 수반한다. 2) 보조 인유 신호 확인. 일단 주요 신호가 확인되면, 관련된 보조 신호들이 드러난다.

1979), 588.

14) Ziva Ben-Porat, “The Poetics of Literary Allusion,” *PTL* 1 (1976), 107-8 (“The literary allusion is a device for the simultaneous activation of two texts. The activation is achieved through the manipulation of a special signal: a sign [simple or complex] in a given text characterized by an additional larger ‘referent.’ This referent is always an independent text. The simultaneous activation of the two texts thus connected results in the formation of intertextual patterns whose nature cannot be predetermined”).

15) 더 충분한 인유 분석을 위해 논자는 다른 곳에서 네 번째 단계로 “인유의 주석적 흐름”을 제시했다. 이 단계에서는 다니엘서에 사용된 문학적 인유가 제2성전기 문헌 및 신약 성경 등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의 문학사적 흐름에서 수용되고 발전하는 궤적을 서술한다(Kim,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Daniel,” 36-7).

보조 신호들은 주요 신호에 비하여 언어적 유사성보다 관념적 유사성이 더 두드러진다. 3) 인유의 최대 활성화. 독자는 신호가 내장된 본문들이 연결되며 나타나는 의미, 나아가 그 본문들이 속한 넓은 문맥들이 상호 작용하여 생산하는 의미까지 인식한다. 이때 선행 본문과 후행 본문의 세부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만드는 의미들은 인유를 알리는 표지들 너머의 자료에서 나온다.<sup>16)</sup>

또한 본 연구에서 논자는 구약 성경 본문간 연관성에 관한 학자들의 최근 연구 실적들에 기반하여 문학적 인유 사용을 입증하는 여섯 가지 기준들을 고려했다. 1) 어휘 및 구문 일치: 공유된 언어와 구문의 평행성은 본문간 연결을 확립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며, 이때 어휘는 저자의 의도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주 변형된다. 2) 인유의 양적 밀집: 공유된 어휘가 특정 본문에서만 높은 빈도로 분포하면 저자가 인유를 통한 그들 본문 간 소통을 의도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3) 유사 상황 재현: 저자는 사건, 대화, 핵심, 독특한 본문 요소 등을 그와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며, 이때 언어적 유사성이 없을 수도 있다. 4) 선행 본문에 대한 의도적 수정: 저자는 환기되는 본문의 요소를 암시하는 본문에서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두 본문을 조화시키거나 환기되는 본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5) 선행 본문으로부터 후행 본문으로 문맥 전이: 저자는 인유를 통하여 환기되는 본문의 문맥을 암시하는 본문 속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암시하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제공한다. 문맥 전이는 모티프 어휘 혹은 히브리 성경에서 출현 빈도가 매우 낮은 어휘가 인유 신호로 쓰일 때 더욱 뚜렷해진다. 6) 다수 인유의 축적 효과: 인유 사용의 확실성은 앞에 언급된 기준들 중 하나만으로는 단정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인유 신호들이 한 문맥 속에서 연관되어 출현할 때 용이하게 규명된다.<sup>17)</sup>

16) Ben-Porat, "The Poetics of Literary Allusion," 111; Pucci, *The Full-Knowing Reader*, 43-4.

17) Kim,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Daniel," 25-31.

## 2. 다니엘 1장-2장에서 창세기 10장-11장 인유

우선 다니엘서의 첫 구절을 보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단 1:1-2). 다니엘서의 이 서문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 대한 군사적 폭력을 강조하면서, 이어질 다니엘 1장-6장 서사의 바벨론 포로기 배경을 수립한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약탈하여 그 중 일부를 자기 신들의 보고에 갖다 두었다. 이 서문은 창세기의 바벨 기사를 환기시킨다. 창 11:1-9에 따르면, 홍수 후 인류는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의 한 평원을 발견했고, 장차 “바벨”이라 불릴 것 같은 곳에 거주한다(창 11:2,9). 거기서 그들은 인간 교만의 구현이 될, 꼭대기가 하늘 속에 있게 될 만큼 높은 탑과 도시 건축을 시도한다.<sup>18)</sup> 엄청난 대규모 건축 사업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된다.

학자들은 다니엘 서문이 창세기의 옛 바벨을 암시하는 분위기를 이미 감지했다. 예컨대, 조오지 나이트(George A. F. Knight)는 단 1:2의 용어 ‘시날’을 “고대의 향취를 풍기는 암시”로 규정했는데,<sup>19)</sup> “시날이 다니엘서의 주제와 정반대로서 바벨탑 건축지를 가리키도록 선택된” 용어라고 했던 제임스 몽고메리(James A. Montgomery)의 견해를 반영

18) 창세기 바벨탑 기사에서 인간 교만의 본질 및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가진 다양한 의미들에 관하여, 하경택 “원역사(原歷史) 안에서의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26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43 (2012), 57-83.

19) George A. F. Knight, “The Book of Daniel” in Charles M. Laymon ed., *Interpreter's One Volume Commentary on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1971), 348; 유사하게 André Lacocque, *The Book of Daniel* (Atlanta: John Knox Press, 1979), 26; Daniel L.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Leander E. Keck ed.,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39.

했다.<sup>20)</sup> 이런 견해들은 다니엘서 서문과 관계되긴 하지만, 다니엘서의 “시날”이 창세기의 바벨탑 기사를 정말로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지는 않았다. 또한 다니엘서 서문이 창세기의 바벨탑 본문을 환기시킴으로써 의도했던 뚜렷한 교훈을 조사한 연구는 논자가 아는 한 아직까지 없었다. 다니엘서가 이전 시기에 기록된 성경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이 개인적 소감 피력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다니엘서와 창세기 “시날”의 구체적 관련성 입증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해야 한다. 해석자가 다니엘서 본문 내에 모종의 인유가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는 반드시 그 인유의 사용을 입증하는 작업부터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해석자는 저자가 의도한 그 인유의 기능도 설명해야 하며,<sup>21)</sup> 다니엘서와 연결된 다른 구약 본문이 다니엘서 독자/청중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 설명을 덧붙일 수 있어야 한다.

## 2.1. 주요 인유 신호들

논자는 두 개의 독립된 본문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학적 인유라는 관점에서 다니엘 1장 서론의 “시날 땅”을 분석해 보겠다. 이 활성화는 독자/청중의 인유 신호 인식에서 시작된다. 논자는 먼저 암시하는 다니엘서 본문의 지향 표지와 환기되는 창세기 본문의 대상 표지를 명시하겠다. 형태론적으로 동일한 이 두 표지들은 “시날 땅”(창 10:10; 11:2; 단 1:2)과 “바벨론/바벨”(창 10:10; 11:9; 단 1:1)이다.

20) James A. Montgomery, *The Book of Daniel* (Edinburgh: T. & T. Clark, 1927), 117.

21) Benjamin G. Wold, *Women, Men, and Angels: The Qumran Wisdom Document Musar leMevin and its Allusions to Genesis Creation Tradition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51.

표 I: 인유의 주요 신호들

암시하는 후행 본문	환기되는 선행 본문	
다니엘 1:1-2	창세기 10:8-12	창세기 11:1-9
v. 1 바벨(בבל)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포위했다.	vv. 8-10 니므롯 ...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 ... 그의 왕국의 시작은 바벨(בבל)	v. 9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בבל)로 불려졌나니, 이는 거기서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섞었기 때문이다.
v. 2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שֵׁן-שֶׁנַר)의 자기 신들의 전으로 가져갔다.	v. 10 시날 땅(שֵׁן-שֶׁנַר)의 악жат과 칼네	v. 2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시날 땅(שֵׁן-שֶׁנַר)에서 한 평원을 찾았고 거기 거주했다.

엄밀한 기준에서, 지명 “시날 땅”은 그 자체만으로 문학적 인유로 볼 수 없으며, 문학적 인유를 구성하는 지향 표지나 대상 표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시날 땅”은 다니엘 서문의 독자/청중에게 창세기 바벨 기사들을 기억하게 하는 신호이며, 독자/청중은 이 신호를 통해 다니엘 서문과 창세기 본문의 연결을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보조 신호들을 보여주는 표 II에서 확인되듯, 다니엘 서문에는 “시날 땅” 외에도 더 많은 여러 신호들이 내장되어 있고, 독자/청중은 모든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해독하여 저자가 의도한 본문간 연관성을 분명히 확인한다.<sup>22)</sup> 그런 다음 독자/청중은 관련 본문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니엘 서문과 창세기 바벨 기사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생산하는 의미들을 깨닫는다. 위의 표 I이 보여주듯이, 서문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인유 신호는 “바벨”이며, 다른 인유 신호 “시날 땅”과 더불어 창세기의 “바벨”에 대한 독자/청중의 기억을 효과적으로 일깨운다. 그 결과 독자/청중은 다니엘 서문을 고대 바벨에 관한 창세기의 두 본문들을 배경으로 이해하도록 안내된다(창 10:8-12; 11:1-9).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인류가

22) Ben-Porat, “Forms of Intertextuality and the Reading of Poetry: Uri Zvi Greenberg’s Basch’ar,” *Prooftexts* 10:1 (1990), 258.

언어에 따라 민족과 지역별로 나뉘어 거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를 홍수 직후 바벨과 관련하여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열”되었으며,<sup>23)</sup> 바로 그런 창세기 저자 모세의 의도를 다니엘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서문을 통해 창세기의 두 본문들을 모두 환기함으로써 자신의 독자/청중에게 대홍수 이후 고대 바벨에 관한 큰 그림을 떠올려 주려 했던 것이다.<sup>24)</sup> 이 사실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창세기의 두 본문들이 각각 다니엘서 서문과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두 본문들이 함께 전하는 바벨 사건(창 11:1-9)과 그 결과(창 10장)가 다니엘 서문의 독자/청중에게 바벨론의 유다 정복에 관한 근본적 평가 관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인유 신호 ‘시날’은 고대 근동 문서에서 바벨론을 가리키는 전통적 어휘임이 널리 확인된다.<sup>25)</sup> ‘바벨’은 구약성경에서 최소한 262회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다니엘 서문에 사용된 이 두 단어가 오직 창세기의 그 두 본문만을 가리키는 표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창세기와 다니엘서의 상호 본문적 의미 생산(intertextual patterning)에 관하여<sup>26)</sup> 본격적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논자는 우선 다니엘 서문의 창세기 본문들에 대한 인유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다니엘과 창세기에 공유된 이 두 어휘는 “질적인(qualitative)” 중요성을 획득한다.<sup>27)</sup> ‘시날 땅’은 구약 성경에서 몹시 드

23)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trans., John H. Mark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152; 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from Noah to Abraham*, trans., Israel Abrahams, (Jerusalem: Magnes Press, 1964), 141-3.

24) 한 본문이 여러 본문과 동시에 연결되는 현상에 관하여 Benjamin Hrushovski, “Fictionality and Fields of Reference: Remarks on a Theoretical Framework,” *PT* 5:2 (1984), 230.

25) Ran Zadok, “The Origin of the Name Shinar,” *ZA* 74:2 (1984), 240-4.

26) Benjamin Hrushovski, “Theory of the Literary Text and the Structure of Non-Narrative Fiction: In the First Episode of War and Peace,” *PT* 9:3 (1988), 638.

27) Esther Chazon, “The Use of the Bible as a Key to Meaning in Psalm from Qumran,”

물게 사용된다.<sup>28)</sup> 그렇기에 이 어휘가 창세기에서 바벨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을 기억하는 독자/청중에게는 단1:2의 이 어휘가 눈에 띄었을 것이다(창 10:10; 11:2).<sup>29)</sup> 만일 독자/청중이 ‘바벨’과 그 지명 ‘시날 땅이 같이 등장하는 본문은 오직 창세기와 다니엘 서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독자/청중은 후행 본문 다니엘이 창세기를 인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재어보게 된다.<sup>30)</sup> 이후로 독자/청중의 이해 과정에서 다니엘 서론은 창세기의 바벨 본문들과 역동적인 상호소통을 지속하며, 독자/청중은 창세기 본문들이 다니엘 본문의 언어와 사상 형성의 중요한 근원임을 더욱 확신한다.

둘째, 문맥의 전이가 발생한다. 인유의 신호로서 “시날 땅”과 “바벨”은 그들이 사용된 창세기 본문의 문맥을 다니엘 본문 속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마이클 피쉬베인(Michael Fishbane)은 ‘에덴’과 같은 고대의 신성한 장소 이미지는 “한 서사의 주제에서 다른 서사의 주제로 그 공간적 심상을 온전히 전이”시킴으로써 일종의 모형론적 관계를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바르게 주장했다.<sup>31)</sup> 본질상 동일한 현상이 ‘바벨’에

Shalom M. Paul et al. eds., *Emanuel: Studies in Hebrew Bible Septuagint and Dead Sea Scrolls in Honor of Emanuel Tov* (Leiden: Brill, 2003), 95.

- 28) 이 표현은 성경에서 4회 등장한다. 2회는 창세기(창 10:10; 11:2), 1회는 각각 다니엘과 스가라다. 스킵 5:11은 “시날 땅”을 “악”을 위해 “성전”이 건축된 신성모독의 장소로 제시한다. 단 1:2 이 그 스가라 본문을 의식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땅”이라는 말 없이 사용된 “시날”은 창 14:1, 9 (“시날 왕”), 수 7:21 (“시날 산 외투”), 사 11:11 (“시날로부터”)가 있는데, 다니엘 서문과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
- 29) 이것은 문학 비평가 피쉬의 “정통한 독자” 개념이다. Stanley Fish, “Literature in the Reader: Affective Stylistics,” *NLH* 2:1 (1970), 145. “a real reader ... who does everything within his power to make himself informed.” 정통한 독자의 독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 그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들에 의존한다. 독자 반응 비평의 독자 개념은 R.M. Fowler, “Who is ‘the Reader’ in Reader Response Criticism,” *Semeia* 31 (1985), 5-23.
- 30) Alter, *The Pleasure of Reading*, 121-122.
- 31)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368; 유사하게, Dale C. Allison Jr.,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3), 19 (“한 사건은 그와 상황적으로 유사한

도 적용된다. ‘바벨’과 같은 신성모독적 장소 역시 그 공간적 심상을 한 본문으로부터 다른 본문으로 전이할 때 일정한 모형론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에덴이 “공간적 조화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원형적 기억”을 대변하는 문학적 표현이라면,<sup>32)</sup> 대조적으로 ‘바벨’은 공간적 부조화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원형적 기억을 보존한다.<sup>33)</sup> 바벨에서 인류는 무한한 권력을 욕망하고 하나님은 그 욕망을 철저히 좌절시킨다(창10:8-12; 11:1-9). 다니엘은 자신의 책의 서두에서 창세기의 바벨로 상징되는 인간 교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적 기억을 인류를 통해 자신의 독자/청중의 의식 속에 활성화시킴으로써 니므롯의 바벨과 느부갓네살의 바벨 사이에 모형론적 관계를 세운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니엘은 독자/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약탈을, 홍수 이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류의 반역과 유사한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독자/청중은 바벨의 복귀를 깨닫는다. 동시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도 예감한다. 창세기 바벨 기사에 대한 다니엘의 문학적 인유는 다니엘서 안으로 대홍수 직후 고대 역사를 배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 포로기 독자/청중은 바벨에 의한 유다 멸망을 고대 바벨 역사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건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셋째, 다니엘 서문에서 “시날 땅”과 “바벨”을 연속적으로 사용됨으

---

또 다른 (사건)을 환기시키도록 의도될 수 있다”(괄호는 논자의 추가).

32)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369. 유사하게 Peter W. Coxon, “The Great Tree of Daniel 4,” James D. Martin and Philip R. Davies eds., *A Word in Season* (Sheffield: JSOT press, 1986), 92. “창세기의 바벨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시초에 바벨의 전형적인 패배를 보여준다.”

33) Heinrich Groß, “Weltherrschaft als Gottesherrschaft nach Genesis 11,1-9 und Daniel 7: Bibeltheologische Überlegungen,” Johann Auer et al. eds., *Gottesherrschaft, Weltherrschaft: Festschrift Rudolf Graber zum Abschied von seiner Diözese Regensburg überreicht von Professoren der Katholisch-Theolog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Regensburg und Priestern der Diözese Regensburg im Hochschuldienst September 1980* (Regensburg: Friedrich Pustet Verlag, 1980), 16.

로써 똑 같은 단어들(이)이 근접하여 사용된 창세기의 바벨 본문들을 독자가 의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창 10:10; 11:2, 9).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바벨의 왕”으로 소개할 때, 독자/청중은 다니엘서 첫머리부터 “바벨”이라는 창세기 용어를 듣게 된다(단 1:1).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저자는 바벨의 다른 이름인 “시날 땅”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청중으로 하여금 이 두 용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창세기의 두 본문들을 회상하게 만든다(단 1:2; 창 10:10; 11:2, 9). 이 두 단어를 연속으로 등장하게 한 다니엘의 어휘 사용 방식은 논자가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 근거와도 관련된다. 즉, 바벨에 대한 원형적 심상이 창세기에서 다니엘로 전이되는 현상은 일찌감치 다니엘서의 도입부에서부터 의도된 것이다. 이는 곧 창세기의 바벨 기사가 다니엘서 시작부터 활성화되게 함으로써, 이후 전개될 내용들에 대한 독자/청중의 이해에 바벨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다니엘의 능숙한 서술 기법이라 하겠다. 니므롯이 통치한 바벨의 비극적 결말을 기억하는 독자/청중이라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이 하늘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사건들 역시 비슷한 결말을 만나리라 예감했을 것이다.

마지막 넷째, 사용되는 창세기 본문과 그것을 사용하는 다니엘 본문 사이의 관념적 연결점들이 양 본문 간 작동하는 인유를 반증한다. 일단 독자/청중이 “바벨”과 “시날 땅”을 창세기 본문과 다니엘 본문의 인유 신호로 인식하고 나면, 독자/청중은 이 신호들이 속한 두 본문들의 문맥들 간 여러 구성 요소들을 동원하여 관념적 연결점들을 만들게 된다. 그럼으로써 독자/청중은 그 문맥들 속에 흩어져 있는 언어 자료들을 의미 있게 연결함으로써 양 본문 간 이뤄지는 대화를 구체적으로 듣게 된다.<sup>34)</sup> 이때 후행 본문 속에서 어떤 선행 본문이 환기되고 있는지를 독자/청중이 더 분명하게 인식할수록, 저자가 양 본문의 연결을 통해 의도한 관념적 상호관계 역시 더 쉽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두 본문의 관념적 호응 관계는 독자/청중으로 하여금 인유의 보조적 신호들을

34) Ben-Porat, “The Poetics of Allusion,” 5.

발견하게 이끈다. 보조적인 신호들 역시 주요 신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sup>35)</sup>

창세기와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며 무슨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가? “바벨” 왕으로 소개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날 땅”으로 귀환한다(단 1:1-2). 느부갓네살 왕은 창세기 10장의 바벨 왕 니므롯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는 홍수 후에 “바벨”을 비롯하여 “시날 땅”의 많은 유명 도시들을 창설한 정복자다(창 10:10). 바벨을 창립한 왕과 바벨을 재건한 왕의 관련은 또 다른 창세기 본문이 “시날 땅”에 있는 니므롯의 “바벨”에 대해 설명할 때 공고해진다(창 11:2, 9). 느부갓네살의 정복자 이미지는 창세기 10장의 니므롯을 연상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도전은 창세기 11장의 홍수 후 고대 인류를 닮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1:1-9에 따르면 바벨 시민들은 창조주의 영역인 “하늘”을 침범하는 탑 건축을 시도했다. 고대 인류의 집단 에너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규모 건설공사는 창세기의 넓은 문맥을 고려할 때 대홍수 이후 인류가 하나님께 가진 반감의 표출이다. 하나님은 노아가족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땅을 채우라” 명령하신다(창 9:1). 그러나 바벨의 건축자들은 결코 지면에서 흠어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통치하는 창조주의 권위를 거역하기로 합의한다(창 11:4). 아마 그들은 탑 끝이 하늘 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배하는 초월적 영역에 대하여 모종의 공격을 감행하려 한 것 같다. 인간의 야망은 실패했다. 그들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은 그들의 공통 언어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셨다.

여기서 다니엘 서론이 바벨 이야기를 환기시킴으로써 독자/청중은 흥미로운 유비를 깨닫는다. 느부갓네살의 야만스러운 예루살렘 침공은, 그 건축자들이 하늘 하나님의 영역을 뒤흔들려는 허망한 시도와 본질상 유사하다.<sup>36)</sup> 느부갓네살과 건축자 사이에 작동하는 유비는 독자/청중

35) 주요/보조 신호에 관하여 Ben-Porat, “The Poetics of Allusion,” 171.

36) Coxon, “The Great Tree of Daniel 4,” 92.

으로 하여금 황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대결한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될 것을 예감하게 하는 전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서문의 또 다른 인유 신호 “바벨”이 고대 니므롯의 바벨을 가리킨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창 10:8-12). 창세기의 니므롯 기사가 다니엘서 서문 이해에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학자들에게 철저히 간과되어 왔다. 창 10:8-12은 “바벨”이 니므롯의 세상 정벌의 시발점이 되었던 첫 번째 도시 국가이며 “시날 땅”이라는 지명과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최초의 성경 본문이다. 일단 독자/청중이 인유를 통해 고대 세상의 정복자요 바벨탑 건축의 주도자인 니므롯을 상기하게 되면, 독자/청중은 바벨의 새로운 상속자 느부갓네살의 미래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니엘 서문이 창세기의 두 본문을 동시에 인유한다는 사실은 왜 중요한가? 위에서 이미 간략히 언급했듯이, 다니엘은 환기되는 창세기의 두 본문이 바벨에서 발생한 단일한 사건을 상호 보충하면서 설명한다고 이해한 자신의 해석을 그의 창세기 인유를 통해 암시하기 때문이다. 논자는 다니엘이 사용한 이 두 표지—시날 땅과 ‘바벨’—를 복수의 본문을 환기시키는 “복합 표지”로 규정한다. 복합 표지의 섬세한 기능은 이스라엘 문학 비평가 카나 크론펠드(Chana Kronfeld)의 글에서 잘 요약된다. 복합 표지는 “한 개 이상 개별적으로 환기되는 본문들 ... 혹은 여러 개로 이루어진 본문들을 활성화시킨다. 그리하여 두 본문의 동시적 활성화나 상호 보충적인 수정은 단지 암시하는 본문과 환기되는 본문 사이에만 아니라 환기되는 본문들 내에서도 발생한다.”<sup>37)</sup> 복합 표지의 이러한 활성화 특성은 다니엘서 서문에서 잘 입증된다. ‘시날 땅과 ‘바벨’이라는 복합 표지들은 다니엘서의 암시하는 본문을 창세기의 환기되는 두 본문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7) Chana Kronfeld, “Allusion: An Israeli Perspective,” *Prooftexts*, 5:2 (1985), 152, 154 (강조는 저자의 것); Chana Kronfeld, *On the Margins of Modernism: Decentering Literary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132, 134.

환기되는 본문 간의 내적 활성화도 분명하다. 이 활성화는 느부갓네살 왕과 하늘의 주재 간의 갈등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킨다. 하나의 환기 본문인 창세기 10장 본문은 니므롯을 “르호봇-이르”와 “칼라” 등 고대의 거대 도시들의 설립자로 묘사한다(창 10:12).<sup>38)</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또 하나의 환기 본문인 창세기 11장 역시 홍수 직후의 인류를 거대한 건축물 축조에 열광하는 자들로 제시한다. 그 결과, 이 두 환기 본문들 내의 상호 본문적 활성화는 독자/청중으로 하여금 창 11:1-9이 창 10:10의 주석적 설명임을 이해하게 만든다. 창 11:1-9은 과연 니므롯은 어떻게 바벨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또한 왜 그와 그의 신민들은 탑 건축을 시작했지만 미완으로 남길 수 밖에 없었는지에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홍수 후 니므롯이 바벨을 비롯하여 거대 도시 설립에 몰입했고(창세기 10장), 홍수 후 인류가 바벨에서 시도했던 사건은 결국 바벨의 첫 군주인 니므롯이 바벨탑 건축 사업의 지도자였음을 암시한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했던 “니므롯과 그의 신민들”이 이후 창 11:1-9의 내용을 통해 “소급적 방식으로 반역자임이 강조되는” 셈이다.<sup>39)</sup> 요컨대, 니므롯의 첫 번째 왕국의 이름(창 10:8-12)과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죄악의 역사(창 11:1-9)는 홍수 후 바벨에서 벌어진 인류의 정치사를 상호 보충적으로 기록했고, 창세기의 이 두 본문이 전하는 바벨의 역사를 다니엘 서문이 느부갓네살의 바벨에 사로잡힌

38) 르호봇-이르는 도시의 광장들, 혹은 광장들을 지닌 도시다. 이 호칭은 니스웨나(Jack M. Sasson, “Rehovot Ir,” *RB* 90:1 [1983], 96), 앗수르 성을 가리킨다(Arie van der Kooij, “The City of Babel and Assyrian Imperialism: Genesis 11:1-9 Interpreted in the Light of Mesopotamian Sources,” André Lemaire ed., *Congress Volume Leiden 2004* [Brill: Leiden, 2006], 11-12). 칼라의 뜻은 “거대 도시”다(요나 4:11; 1:2; 3:2, 3; Liv. Pro. 10:3).

39) Mary Katherine Y. H. Hom, “‘... A Mighty Hunter before YHWH’: Genesis 10:9 and the Moral-Theological Evaluation of Nimrod,” *VT* 60:1 (2010), 68. 바벨탑 기사와 니므롯 기사의 유사점은 언어적으로 נִבְּלַע (창 10:9; 11:9), עָרָאָה (창 10:11; 11:1, 4, 8, 9), הִנֵּב (창 10:11; 11:4, 5, 8), 주제적으로 הַלְדוּנָה רִיעָה (창 10:12b); לְאִמְנוּ רִיעָה (창 11:4).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억시킨 것이다.<sup>40)</sup>

## 2.2. 보조 인유 신호들

주요 신호가 본문들의 동시적 활성화를 시작하고 확립하면, 보조 인유 신호들은 그것을 심화하고 완성한다. 주요 신호와 보조 신호를 통한 활성화의 과정을 통해 독자/청중은 창세기의 바벨 본문들의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보조 인유 신호들은 아래와 같다.

표2: 보조 인유 신호들

암시하는 후행 본문	환기되는 선행 본문	
다니엘 1:1-2	창세기 10:8-12	창세기 11:1-9
v. 1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תּוֹכַלְמִי) 제 삼 년에 바벨론(בָּבֶל)왕 느부갓네살이	v. 10 그의 왕국(מַמְלַכְתּוֹ)의 시작은 바벨(בָּבֶל)이었다	
vv. 1-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בָּא) ... 그것들을 시날 땅으로 가져갔고(לָקַח) ... 두었다(אָבַד)		vv. 5, 7 여호와께서 그 도시와 탑을 보시러 내려 오셨다(יָרַד) ... 우리가 내려가자(יָרַדְנוּ)
	vv. 11-12 그가 르호봇-이르(רִיבְתַיִם)와 갈라곤 큰 도시(עִיר)를 세웠다(בָּנָה)	v. 4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עִיר)와 그 끝이 하늘에 있는 탑을 짓자(בָּנָה)

40) 이처럼 창세기의 문맥과 그 문맥에 대한 다니엘서의 신중한 재사용을 염두에 둘 때, 창세기 10장 인류의 분산 정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재고되어야 한다(예. 하경택, “원역사(原歷史) 안에서의 바벨탑 이야기,” 65, 79). 하나님의 축복은 “언어의 분화와 흩어짐”이라기보다는, 흩어진 인류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다(창 12:1-3).

다니엘의 암시하는 본문과 창 10:8-12의 환기되는 본문 사이에 동계어 “통치”와 “왕국”이 각각 대상 표지와 지향 표지로 기능한다. 이 두 본문의 활성화는 유다 왕조의 덧없음과 바벨의 번영을 날카롭게 대비한다.<sup>41)</sup> 인유의 관점에서 텍스트는 독자/청중이 텍스트의 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의미를 생산하는 통합된 세계다.<sup>42)</sup> 다니엘 서문에 따르면, 여호야김의 ‘통치’(תּוֹכַלְמִ)는 단 삼 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진다. 이와 사뭇 대조적인 사실이 창 10:8-12을 통해 드러난다. 니므롯의 왕국(מְמַלְכֻתוֹ) 통치는 바벨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흥왕했다. ‘통치’라는 견지에서 대조를 이루는 이 두 사실은 주전 6세기 유대인 독자/청중으로 하여금 바벨의 오랜 번영에 비해 너무나 허망했던 유다 왕국의 파멸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물론, 독자/청중은 다니엘 서문만으로도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당한 비극이 어떻게 고대 바벨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독자/청중이 깨닫는 것은 오직 그들이 다니엘 서문을 문학적 인유를 통해 창세기 니므롯 본문들과 연결하여 읽은 다음에야 가능해진다. 창세기에서 니므롯은 절대 권력을 실현한 제국주의 정치인이다. 창세기 10장에 대한 다니엘서의 인유는 독자/청중으로 하여금 니므롯 왕을 느부갓네살 왕의 원형으로 알아보게 한다. 오직 인유를 통한 양 본문간의 긴밀한 연관을 확신한 후에야 비로소 독자/청중은 느부갓네살의 제국주의적 예루살렘 침탈이 니므롯의 과격한 영토 확장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뻗어 나온 사건임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오직 창세기 본문을 활성화한 다음에야 비로소 독자/청중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 예루살렘이 인간의 권력욕의 상징 바벨론에 의해 파괴당한 사건은, 홍수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인간의 정치적 패권 야망이 벗어낸

41) Klaus Koch, *Dani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5), 36. 그는 단 1:2에서 “תּוֹכַלְמִ”와 “מְמַלְכֻתוֹ”의 의도적 사용을 주목한다.

42) Benjamin Hrushovski, “An Outline of Integrational Semantics: An Understander’s Theory of Meaning in Context,” *Poetics Today* 3:4 (1982), 78-7.

참상임을 확인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인유를 통하여 다니엘 서문의 니므롯 기사에 대한 해석이 암시된다는 사실이다. 니므롯은 그의 첫 번째 왕국 바벨에서 탑 건설을 지휘했고, 이후에는 시날 땅에 구축한 자신의 통치를 앗시리아로 확장했다(창 10:10-11).<sup>43)</sup> 이 사실은 니므롯을 바벨탑 건축의 지휘자로 간주하면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기사들을 창세기의 니므롯 기사들과 연결하는 고대 유대교 문헌들에서 더욱 잘 확인된다.<sup>44)</sup> 그 유대 문헌들보다 이른 시기의 저작으로서 다니엘서는 서문에서부터 창세기 인유를 통해 독자/청자에게 그런 니므롯을 기억하도록 이끈다. 니므롯의 원형적 제국주의(창세기 10장)는 그가 바벨에서 벌였던 대규모 건축 사업과 굳건히 연결되면서, 다니엘서의 독자/청중은 니므롯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관점을 가질 것이다. 이 관점은 예루살렘에 군사적 폭력을 자행한 니므롯의 후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독자/청중의 평가적 관점으로 연결된다. 즉, 다니엘서는 독자/청중들에게,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 약탈은 니므롯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역까지 지배하려고 했던 야망의 새로운 출현에 다름 아님을 알리고 있는 셈이다. 그의 선임자처럼, 느부갓네살은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니므롯의 불법한 야망을 저지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어떤 유사한 반역도 분쇄하실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다니엘 서문의 창세기 인유는 바벨을 지배하는 두 군주들에 대한 저자 다니엘의 예표적 관점을 드러낸다.

창세기의 니므롯이 여러 방식으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을 전조할

43) James Kugel, *Traditions of the Bible: A Guide to the Bible As it Was at the Start of the Common Era*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230.

44) 예컨대, Philo, *Pseudo-Philo, Josephus, Jerome, Augustine of Hippo, Ephrem the Syrian, Ishodad of Merv, rabbinic authors of Targums, Tibat Marqa, and Pirqei deR. Eliezer* (Kugel, *Traditions of the Bible*, 230-2); Louis Ginzberg, *The Legends of the Jews* Vol. I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09), 177-81; K. van der Toorn and P. W. van der Horst, "Nimrod before and after the Bible," *HTR* 83:1 (1990), 1-29 (특히, 16-24).

때, 서문을 기록한 다니엘의 평가적 관점이 더 분명해 진다. 서문에서 “시날 땅”은 느부갓네살의 신의 성전이 위치를 가리킨다(단1:2).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그의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의 신을 압도했음을 과시한 행동이다(단 1:2).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시날 땅”이라는 인유 신호는 독자/청중에게 니므롯의 첫 번째 왕국인 바벨을 상기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의 성취가 갖는 의미를 크게 축소시킨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까지 자신의 왕권을 확장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바벨에서 좌절시키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sup>45)</sup> 인유를 통해 창세기의 니므롯이 하나님께 받은 형벌을 환기시킴으로써 다니엘 서문은 독자/청중에게 바벨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비평적 시야를 열어준다.<sup>46)</sup> 바벨과 그곳의 고층 건물 축조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던 니므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한 다니엘서의 독자/청중은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다시 도전한 느부갓네살도 니므롯처럼 심판 당할 것을 예상하게 된다.

니므롯과 느부갓네살의 유비 관계는 창세기의 하나님과 바벨 사이의 갈등 모티프를 통해 더 증대된다. 창세기 10장의 니므롯에 대한 인유처럼, 창세기 11장의 니므롯의 바벨에 대한 인유 역시 하나님께 대한 느부갓네살의 모독적 도전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 창세기11:1-9과 다니엘 1:1-2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청중은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충돌을 알아보게 된다. 다니엘 본문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공격을 바라보는 독자/청중은, 환기되는 창세기 본문이 그와 대조적인 사건 즉 주님의 바벨 공격을 발견할 것이다. 양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을 발견한 독자/청중은 결국 시날 땅에서 하나님과 바벨의 니므롯 사이에 벌어졌던 바 하나님과

45) Kugel, *Traditions of the Bible*, 230.

46) E. A. Speiser, *Genesis* (New York: Doubleday, 1964), 74; Nahum M. Sarna,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1970), 76.

인류 사이의 충돌이 이제는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충돌을 통해 제 이차 대결로 접어들었음을 알게 된다. 니므롯은 자신의 신민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침범할 정도로 강한 힘의 높은 탑을 건축하려 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키셨다. 그들은 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온 지면에 흩어진다(창 11:9). 그러나 다니엘 서문의 암시에 따르면, 당시 하나님의 승리는 일차 대결의 승리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습격시도는 여전히 지속 중임을 다니엘이 알린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침입하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 약탈(과 훗날 있을 처참한 파괴)은, 그러므로 주전 육 세기 다니엘서의 유대인 독자/청중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께 바벨의 인류가 감행한 일종의 반격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은 창세기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응과 다니엘 본문이 보여주는 느부갓네살의 반응 사이의 대조로 잘 암시된다. 위의 표II에서 보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도사”로 “내려오신” 행동이 반복 보도되면서, 인류가 건축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지하신 행동이 강조된다(창 11:4-7).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성전 약탈과 관련된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בָּנָה”가 세 가지 형태로 활용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바벨 왕의 대응이 상세히 전달된다(단 1:1-2).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려 온 이 바벨의 왕은 자기 신의 ‘성전을 장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무참히 약탈했다(단 1:1-2).<sup>47)</sup> 바벨의 새로운 왕은, 바벨의 인류를 냉정히 거절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제압했으며, 뿐만 아니라 바벨의 건축물을 훼방했던 하나님의 건축물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바로 그 하나님이 인류를 제압했던 오래 전 그곳 바벨로 옮겼다.<sup>48)</sup>

47) 히. בָּנָה (집).

48) Zainab Bahrani, “Assault and Abduction: The Fate of the Royal Image in the Ancient Near East,” *AH* 18:3 (1995), 363-82 (특히, 377-80); Zainab Bahrani,

### 3. 문학적 인유의 최대 활성화

논자는 이 장에서 다니엘 제1장이 창세기 인유를 통해 하나님과 바벨의 인간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생생하게 묘사하는지 제시하겠다. 논자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바벨의 공통 언어 모티프를 주전 6세기 유대인 포로들에게 변형하여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방식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인간의 집단적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니므롯과 그의 신민들은 하늘로 침입할 정도의 높은 건축물을 통하여 자신들의 위대한 ‘이름’을 과시하려 했다(창 11:4). 그들의 궁극적 열망은 인간 권력이 하나님의 영역권 안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진압했다. 그러자 바벨의 새로운 지도자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께 반격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다니엘서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불가피하게 연관된다(단 9: 17-19; cf. 신 12:5, 11; 왕상 9:3). 바벨인들에게 하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축조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통해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였고, 어떤 의미에서 이는 곧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감을 허용하심과 같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을 약탈하고 훗날에는 파괴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옛 바벨인들의 탑 건축을 방해하신 하나님께 적극적 공격을 감행한 셈이다.<sup>49)</sup>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서의 유대인 독자/청중에게 느부갓네살의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

*The Graven Image: Representation in Babylonia and Assyr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3), 174-81. Anthea Portier-Young, *Apocalypse against Empire: Theologies of Resistance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11), 150-5 (특히, 151); Winfried Vogel, *The Cultic Motif in the Book of Daniel* (New York: Peter Lang, 2010), 51-5, 72-8.

49) Jean Steinmann, *Daniel: Texte français, Introduction et Commentaires* (Paris: Desclée de Brouwer, 1961), 63.

은혜를 취소시킨 것과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자기 신들의 “집”으로 옮김으로써(단 1:2),<sup>50)</sup> 황제는 이스라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소통’을 종결시켰기 때문이다.<sup>51)</sup> 그런 관점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략을 통해 파괴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지상 이스라엘과 맺으신 은혜로운 관계였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니므롯의 반역을 느부갓네살이 재연한다는 인상은 바벨과 예루살렘에 관련된 서로 다른 두 이름을 통해 더 뚜렷해진다.<sup>52)</sup>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만들자”고 한 말에서 드러나듯(창 11:4), 바벨은 탐 건축자들의 이름을 상징하는 도시 국가다.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거룩한 도시다. 다니엘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만든”(עָשׂוּהָיָה שְׁמֵהּ) 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단 9:15).<sup>53)</sup> 창세기에서 인간의 도시 바벨은 열정적으로 계획되고 정력적으로 건축되지만,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파괴되고 고통스럽게 기억된다. 예컨대, 다니엘 9장 “당신

50) Deryck C. T. Sheriffs, “‘A Tale of Two Cities’: Nationalism in Zion and Babylon,” *TynBul* 39:1 (1988), 42, n.54.

51) Koch, *Daniel*, 34-36 (특히, p. 35); Vogel, *The Cultic Motif in the Book of Daniel*, 69-72.

52) Raymond Hammer, *The Book of Dani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18. 예루살렘과 바벨의 대결은 계시록에도 이어진다. Richard Bauckham, “The Economic Critique of Rome in Revelation 18,” Loveday Alexander ed., *Images of Empir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47-90 (특히, 47-58); Barbara R. Rossing, “City Visions, Feminine Figures and Economic Critique: A Sapiential Topos in the Apocalypse,” B. G. Wright III and L. M. Wills eds., *Conflicted Boundaries in Wisdom and Apocalypticism* (Leiden: Brill, 2006), 181-96 (특히, 190-96); Andreas Hock, “From Babel to the New Jerusalem (Gen 11,1-9 and Rev 21,1-22,5),” *Biblica* 89 (2008), 109-18.

53) 문자적으로, “당신이 당신을 위해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사 63:12, 14; 렘 32:20; 느 9:10)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름을 만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창 12:2; 삼하 7:9; 8:13).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스러운 처소다(예. 왕상 8:29; 왕하23:27; 대하 6:6, 20).

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1장 “우리를 위한 이름”을 생생하게 공명한다. 다니엘은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당신의 이름(שְׁמִי)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소서 ... 당신의 도시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שְׁמִי)으로 불리나이다”고 기도하며 애통한다(단 9:18-19). 이 기도는 바벨론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훼손시킨 것은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황제의 예루살렘 성전 약탈을 보도한 다니엘서의 서문을 다시 상기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성물들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능욕당했음이 강조된다. 요컨대, 과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바벨탑 건축자들의 야욕을 꺾으셨다면, 이제 그들의 후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놓인 예루살렘을 더럽혔고 그곳에 세워진 나라 백성들을 능욕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니므롯과 탑 건축자들과 그들의 후예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과 벌이는 갈등은 점점 더 섬세해 진다. 이때 창세기와 다니엘 사이에서 작동하는 인유가 만들어내는 상호 본문적 의미들은 언어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호응에 바탕을 둔다. 독자/청중은 선행 본문과 후행 본문 사이를 꾸준히 움직이면서, 두 본문의 활성화를 통한 의미론적 가능성을 최대화시킨다.<sup>54)</sup> 이를 통하여 독자/청중은 어떻게 다니엘의 창세기 인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의 시민들로 개조하려는 느부갓네살의 제국주의적 계획을 드러내는지 알게 된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포함한 유대인 귀족들에게 바벨론의 “언어”(לְשׁוֹן)를 배우도록 명령한다(단 1:3-4).<sup>55)</sup> 새로운 바벨의 황제가 세우려는 제국은 모든 구성원들간에 공통 언어가 사용되었던 니므롯의 바벨을 닮았다. 단일한

54) Ziva Ben-Porat and Benjamin Hrushovski, *Structuralist Poetics in Israel*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1974), 15, 41; Hrushovski, “Theory of the Literary Text,” 637.

55) 히. שְׁמִי (갈대아인들). 다른 곳에서 갈대아인들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왕하 24:2; 렘 37:10; 겔 23:23; 사 13:19).

언어를 보급시키려는 그의 시도는 분명히 제국주의적 이념을 반영한다.<sup>56)</sup> 위대한 정치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모든 제국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일 언어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그의 전략적 언어 정책을 통하여 신실한 유대인 독자/청중은 창세기 11:6에 피력된 바, 바벨의 인류가 “한 언어”(שְׂפָתַי אֶחָד)를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기억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의 공통 언어를 중단시킨 하늘의 군왕을 다시 불러 내려는 기세다. 사실상, 새로운 바벨 왕은 하나님의 성도를 비롯한 자신의 모든 미래의 신하들에게 바벨의 언어를 철저히 습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벨에 내리신 심판의 결과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셈이다.<sup>57)</sup>

황제는 인간 제국의 부흥을 위해 언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다양성도 배제시킨다. 그는 히브리 포로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그들이 바벨론인으로 동화되도록 강요한다(단 1:7).<sup>58)</sup> 그들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 신뢰가 표현되어 있다: ‘다니엘(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여호와께서 은혜로우셨다), ‘미사엘(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자랴(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황제는 그들에게 새 이름들을 부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자신과 자신의 신들에게

56) Kooij, “The City of Babel and Assyrian Imperialism,” 8-11; Christoph Uehlinger, *Weltreich und “eine Rede”*: Eine neue Deutung der sogenannten Turmbauerzählung (Gen 11, 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445-91. 그러나 여기서 논자는 창세기 바벨 기사를 모세의 기록으로 보며, 8세기 앗시리아 제국에 대한 비판을 위해 편집되었다는 Uehlinger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Uehlinger; *Weltreich und “eine Rede,”* 514-58; 하경택, “원역사(原歷史) 안에서의 바벨탑 이야기,” 61, 각주 9).

57) C. L. Seow, *Dani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23.

58) 개명과 관련된 제국 정치는 Philip P. Chia, “On Naming the Subject: Postcolonial Reading of Daniel 1,” Rasiah S. Sugirtharajah ed., *The Postcolonial Biblical Reader* (Oxford: Blackwell, 2006), 171-84.

돌리도록 요구한다. ‘벨드사살(그의 생명을 보호하라!), ‘샤드락(아쿠의 명령), ‘메삭(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벤느고(나부의 종).<sup>59)</sup> 이 포로들이 옹호하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은 (‘아쿠,’ ‘느고/나부’ 등) 여러 신들과 그들의 대리자로서 황제를 숭배하는 바벨론의 다신론 사상과 날카롭게 대조된다.<sup>60)</sup> 개명을 통하여 황제는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는 그가 유대인들의 유일신적 충성을 다신교에 기반한 바벨론 제국 사회의 결집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황제가 그들의 이름을 개명한 것은, 본질상 자신의 제국적 권세를 그들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행사한 것이다. 바벨의 건축자들이 대형 건물 건조 사업을 보시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성을 위협스러우리만큼 강력한 것으로 말씀하신다. “보라, 저들이 ‘한 민족(𐤎𐤍 𐤏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 이후로는 그들이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창 11:6).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반역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sup>61)</sup> 그렇다. 니므롯의 바벨에서 한때 인간의 잠재력은 하늘의 하나님조차 좌시하지 못하

59) 바벨론식 이름의 정확한 뜻은 알기 어렵다. 아카드어 *balatsu-ušur*에서 유래한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명 벨을 가졌으며(단 4:8),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은 느부갓네살을 위한 일종의 기도다. “아벤느고의 “느고”는 아마도 네보(나부)가 변형된 듯하며, 샤드락은 마르독을 뜻하고 메삭은 (바벨론의 해석자) 세삭을 뜻할 것이다(렘 25:26)( J. Barr, “Daniel,” Matthew Black and H.H. Rowley eds., *Peake's Commentary on the Bible* (London: Routledge, 1962), 519; John E. Goldingay, *Daniel* (Dallas: Word Books, 1989), 6.

60) 에누마 엘리쉬 5:129에서 마르독은 바벨론을 “위대한 신들의 집”과 “신앙의 중심”으로 만든다 (Stephanie Dalley, *Myths from Mesopotamia: Creation, the Flood, Gilgamesh and Ot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259). 마르독 신전이 있는 바벨론은 많은 신들의 처소다. A. R. George, “E-Sangil and E-Temen-Anki, the Archetypal Cult-Centre,” Johannes Renger ed., *Babylon: Focus mesopotamischer Geschichte, Wiege früher Gelehrsamkeit, Mythos in der Moderne. 2. Internationales Colloquium der Deutschen Orient-Gesellschaft 24-26, März 1998 in Berlin* (Saarbrücken: Druckerei und Verlag, 1999), 67-86 (특히, 73-76).

61)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551.

게 했을 만큼 강력한 불길함이었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당시 인간의 무한한 힘을 복구하고 있다.

하늘의 주재께서는 바벨의 새 지도자의 대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니므롯의 바벨에서 하나님은 공용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려는 일을 예방하사 승리하셨다(창 11:7). 마찬가지로 옛 바벨을 복원하려는 느부갓네살의 시도 역시 좌절된다. 그러나 전과 달리, 새 황제의 도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은 바벨의 언어를 그대로 놔두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그 언어를 익히도록 도우신다. 창세기 바벨 이야기와 비교할 때 이 사실은 놀랍다. 니므롯의 바벨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섞으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창 11:7).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벨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호 소통을 방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벨인들과 소통을 잘하도록 적극 후원하신다. 황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하는데, 그 과정 중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에 대하여 왕이 지정한 것을 거부한다. 아마도 다른 유대인이나 외국 경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비록 느부갓네살의 신화로 발탁될 수 있는 수련 과정에 억지로 동참하긴 하였으나, 황제가 후원하는 음식과 혜택 없이 경쟁에 임함으로써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미래를 맡긴다. 그들은 황제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자신들의 안전과 미래를 맡김으로써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식과 분별력”으로 보상하셨고 그들은 결국 “온갖 책(כְּתוּבִים)에 정통하게 된다(단 1:17).<sup>62)</sup> 나아가, 바벨론의 글에서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 회화에서도 필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한다. 황제가 “그들과 대화했고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한 “지혜와 명철”을 모든 면에서 발휘했고 온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증명된다(단 1:19, 20).<sup>63)</sup>

62) LXX 단 1:17, ἐν πάσῃ γραμματικῇ τέχνῃ (문법의 모든 면).

그렇다면 니므롯의 바벨이 누렸던 제국주의 권력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열망을 하나님은 방지하셨단 말인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무관심 하신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이 독재자를 온전히 통제하신다. 홍수 이후 고대의 바벨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구성원들을 거역할 수 없는 총체적 혼란에 빠뜨리신다. 느부갓네살은 왜 자신의 꿈의 뜻을 알고 싶었을까? 그 꿈은 바벨론의 정치적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능한 유대인 청년들을 납치했고, 그들의 언어를 제한했으며 그들의 신분을 바꿨다. 그는 체계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제국의 고위직에 필요한 고급 두뇌를 양성하여 제국의 번영에 총력을 쏟는다. 황제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사 “장차 일어날 것”을 알리셨고(단 2:29b), 바벨론의 미래는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비밀들”임을 계시하셨다(단 2:28a). 그러나 하나님은 임박한 바벨론의 종말을 드러내시되 그 꿈을 꿈 당사자로서 황제는 물론이고 그의 모든 모사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해석자만 알 수 있게 하셨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제하시기 위해 이 언어를 사용하셨다. 창세기 바벨탑 기사와 다니엘 2장 모두에서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제압하시기 위해 언어를 활용하신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바벨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창 11:7).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의 정치적 기획을 좌절시킨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란시키지 않았

---

63)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문어와 구어로 구별하여 보는 다니엘의 관점은 탈굄에도 드러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바벨의 언어의 그 두 가지를 모두 혼잡케 하신다. “주님의 메트라[말씀]께서 그 도시를 치시려고 나타나셨고, 칠십 민족에 해당하는 칠십 천사들이 각 손에 각 민족의 언어와 기록을 위한 문자를 들고 있었다” (Tg. Ps.-J. 창 11:8).

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오직 단 한 명으로 제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참모들을 무력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이런 방식의 심판은, 다니엘을 “꿈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자로서 소개하는 다니엘 1장에서 준비된다(단 1:17). 이후 다니엘이 해석하는 꿈이 다니엘 외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인 “신비”(גִּיּוֹן)로 다시 정의될 때 더욱 강조된다(단 2:27-30).<sup>64)</sup> 여기서 꿈/신비는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특별한 수단인데, 하나님은 오직 다니엘에게만 그것을 계시하셨으므로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해석”(פְּשָׁרָא)을 알게 하셨다(단 2:30). 다니엘이 이 신비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리신 그 해석은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으로 드러난다(단 2:39).

결국 다니엘 5장에서 하나님은 바벨에서 기원한 제국을 제거하시는 데, 바벨의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메시지로써 하나님의 신비 모티프가 의미심장하게 다시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 뜻을 벨사살 왕에게 알리시되, 이번에는 그 매체를 밤의 꿈이 아니라 벽 위의 작문으로 전환시키신다. 느부갓네살의 꿈들과 벨사살의 왕궁의 글씨는 모두 바벨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sup>65)</sup> 벨사살은 화려한 연회를 베풀었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오라 명령한 후, 하객들과 함께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신다(단 5:1-3). 황제와 제국의 귀족들은 “금,” “은,” “동,” “쇠,” “돌” 등으로 만든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재료들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의 재료들 및 그것을 파쇄한 돌을 상기시킨다(단 2:31-35; 45; 5:4, 23). 문득, 사람의 손가락이 등불 맞은

64) 이 주제는 다니엘 4장도 강조한다. 오직 다니엘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다(단 4:7-9, 21).

65) F. F. Bruce, *Biblical Exegesis in the Qumran Texts* (London: The Tyndale Press, 1960), 9.

편 벽 위에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한다. 다니엘 2장에서처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해석자 다니엘 외에는 바벨론 황제나 제국의 모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실 방식에 관한 “해석”을 전달한다(단 5:17, 26, 28). 하나님은 벨사살이 암살당하게 하심으로써 글로 쓰신 미래를 이루신다.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황제 이야기들은 이처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어의 승리로 그 대미가 장식된다.<sup>66)</sup>

## 나가는 말

다니엘 1장과 2장의 저자 다니엘은 동시대 유대인 포로들에게 인간 나라 바벨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승리를 선포했다. 이 선포를 통하여 다니엘은 유대인의 성경 중 창세기의 바벨 기사를 해석했고, 그 해석으로 포로들과 소통하기 위해 문학적 인유를 사용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홍수 직후 고대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자신들이 처한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게 했다. 다니엘이 제시한 역사 인식에 따르면,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자행한 폭력과 유대인 포로들을 바벨의 종교와 문화에 맞추어 개조하려 했던 일련의 정책들을 대홍수 이후 니므롯의 바벨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대한 새롭고 강력한 도전이다. 다니엘은 니므롯의 후에 느부갓네살을 마치 복수를 위해 되살아난 니므롯으로 제시하면서 바벨의 두 군주들 사이에 뚜렷한 유비 관계를 수립했다. 니므롯과 바벨의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영역 하늘 속으로 침입하는 데에 실패했다면, 느부갓

66) Michael Hilton, “Babel Reversed—Daniel Chapter 5,” *JOT* 66 (1995), 107.

네살과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속으로 들어가 기물들을 약탈한다. 니므롯과 바벨의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림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좌절했고, 이에 대하여 느부갓네살과 그가 일으킨 새로운 바벨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백성을 유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다. 창조주에 대항하는 강력한 인간 제국 재건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야망은 창조주의 선민에게 바벨의 언어를 가르쳐 바벨에 충성하게 만들려는 그의 인재 양성 정책으로 잘 표현되었다.

다니엘의 창세기 해석은 동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인간 나라 바벨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도록 격려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의 불경스러운 도전만 강조하지 않았다. 다니엘서의 바벨 기사 인유는 느부갓네살이 재건한 바벨과 그의 과감한 도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더욱 부각시킨다. 다니엘을 비롯한 신실한 유대인 세 청년들은 자신들의 주권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 황제에게 저항했다. 니므롯의 바벨보다 더 강력해진 느부갓네살의 제국주의가 이스라엘의 창조주 신앙을 억압하고 언약 백성을 바벨의 신민으로 바꾸려는 현실 속에서 그 유대 청년들은 결코 인간 나라의 권력이 침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으로 바벨의 언어와 문학을 가장 탁월한 수준으로 습득했으며,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 택하신 소통 수단으로써 꿈을 해석하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니므롯과 바벨의 건축자들이 일으킨 반역을 진압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공용어를 뒤섞어 인간 상호간의 소통 체계를 마비시키셨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시므로써 바벨의 두 번째 도전을 좌절시킨다. 재건된 바벨의 황제와 지도층은 모든 인간 나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바벨의 통치 조직은 순식간에 혼란과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신비는 다니

엘의 해석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 해석대로 바벨은 벨사살 때에 완전히 몰락한다. 하늘의 하나님은 바벨과의 두 번째 대결을 통해 인간 나라에 대한 절대 주권을 다시 증명하셨다.

<주요어>

다니엘, 창세기, 문학적 인유, 느부갓네살, 니므롯, 제국주의

<Key-words>

Daniel, Genesis, literary allusion, Nebuchadnezzar, Nimrod, Imperialism

\* 접수일 2015년 7월 26일, 수정일 2015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15년 8월 19일

## 참고문헌

- 김대웅,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니므롯의 바벨탑: 다니엘서 제3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 인유,” 「한국개혁신학」 45 (2015), 179-205.
- 하경택, “원역사(原歷史) 안에서의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26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43 (2012), 57-83.
- Allison Jr., Dale C.,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3.
- Alter, Robert, *The Pleasures of Reading: In an Ideological Ag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9.
- Bahrani, Zainab, “Assault and Abduction: The Fate of the Royal Image in the Ancient Near East,” *Art History*, 18:3 (1995), 363-382.
- , *The Graven Image: Representation in Babylonia and Assyr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3.
- Bauckham, Richard, “The Economic Critique of Rome in Revelation 18,” Loveday Alexander ed., *Images of Empir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47-90.
- Beal, G. K. and Carson, D. A.,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Ben-Porat, Ziva, “The Poetics of Literary Allusion,” *PTL: A Journal for Descriptive Poetics and Theory of Literature*, 1 (1976), 105-128.
- , “The Poetics of Allusion—A Text Linking Device—In Different Media of Communication (Literature versus Advertising and Journalism),” Seymour Chatman et al., eds., *A Semiotic Landscape: Proceedings of the First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Milan, June 1974*, Hague: Mouton, 1979, 588-593.
- , “Forms of Intertextuality and the Reading of Poetry: Uri Zvi Greenberg’s Basch‘ar,” *Prooftexts*, 10:1 (1990), 257-281.
- Ben-Porat, Ziva and Hrushovski, Benjamin, *Structuralist Poetics in Israel*,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1974.

- Bruce, F. F., *Biblical Exegesis in the Qumran Texts*, London: The Tyndale Press, 1960.
- Calvin, John, *Book of the Prophet Daniel* Vol 1, Thomas Myers, tran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3.
- Cassuto, Umber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from Noah to Abraham*, trans. Israel Abrahams, Jerusalem: Magnes Press, 1964.
- Chazon, Esther, "The Use of the Bible as a Key to Meaning in Psalm from Qumran," Shalom M. Paul et al. eds., *Emanuel: Studies in Hebrew Bible Septuagint and Dead Sea Scrolls in Honor of Emanuel Tov*, Leiden: Brill, 2003, 85-96.
- Chia, Philip P., "On Naming the Subject: Postcolonial Reading of Daniel 1," Rasiah S. Sugirtharajah ed., *The Postcolonial Biblical Reader*, Oxford: Blackwell, 2006, 171-184.
- Clayton, Jay and Rothstein, Eric, eds., *Influence and Intertextuality in Literary Histor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1.
- Coxon, Peter W., "The Great Tree of Daniel 4," James D. Martin and Philip R. Davies eds., *A Word in Season*, Sheffield: JSOT press, 1986, 91-111.
- Dalley, Stephanie, *Myths from Mesopotamia: Creation, the Flood, Gilgamesh and Ot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Draisma, Sipke, 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r of Bas van Iersel*, Kampen: Uitgeversmaatschappij J.H. Kok, 1989.
- Edenburg, Cynthia, "How (Not) to Murder a King: Variations on a Theme in 1 Sam 24:26,"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12:1 (1998), 64-85.
- Fish, Stanley, "Literature in the Reader: Affective Stylistics," *New Literary History*, 2:1 (1970), 123-162.
- Fishbane, Michael,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 Fowler, R. M., "Who is 'the Reader' in Reader Response Criticism," *Semeia*, 31 (1985), 5-23
- Furniss, Tom, Bath, Michael, *Reading Poetry: An Introduction*, London: Prentice

- Hall, 1996.
- George, A. R., "E-Sangil and E-Temen-Anki, the Archetypal Cult-Centre," Johannes Renger ed., *Babylon: Focus mesopotamischer Geschichte, Wiege früher Gelehrsamkeit, Mythos in der Moderne. 2. Internationales Colloquium der Deutschen Orient-Gesellschaft 24-26, März 1998 in Berlin*, Saarbrücken: Druckerei und Verlag, 1999, 67-86.
- Ginzberg, Louis, *The Legends of the Jews* Vol. I,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09.
- Groß, Heinrich, "Weltherrschaft als Gottesherrschaft nach Genesis 11,1-9 und Daniel 7: Bibeltheologische Überlegungen," Johann Auer et al. eds., *Gottesherrschaft, Weltberrschaft: Festschrift Rudolf Graber zum Abschied von seiner Diözese Regensburg überreicht von Professoren der Katholisch-Theolog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Regensburg und Priestern der Diözese Regensburg im Hochschuldienst September 1980*, Regensburg: Friedrich Pustet Verlag, 1980, 15-22.
- Hammer, Raymond, *The Book of Dani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Henze, Matthias, "The Use of Scripture in the Book of Daniel," Matthias Henze ed., *A Compan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12.
- Hilton, Michael, "Babel Reversed—Daniel Chapter 5,"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66 (1995), 99-112
- Hock, Andreas, "From Babel to the New Jerusalem (Gen 11,1-9 and Rev 21,1-22,5)," *Biblica*, 89 (2008), 109-118.
- Hom, Mary Katherine Y. H., "‘... A Mighty Hunter before YHWH’: Genesis 10:9 and the Moral-Theological Evaluation of Nimrod," *Vetus Testamentum*, 60:1 (2010), 63-68.
- Hrushovski, Benjamin, "An Outline of Integrational Semantics: An Understander's Theory of Meaning in Context," *Poetics Today*, 3:4 (1982).
- , "Fictionality and Fields of Reference: Remarks on a Theoretical

- Framework,” *Poetics Today*, 5:2 (1984), 227-251.
- , “Theory of the Literary Text and the Structure of Non-Narrative Fiction: In the First Episode of War and Peace,” *Poetics Today*, 9:3 (1988), 635-666.
- Kim, Daewoong,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Daniel,” Ph.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2013.
- Knight, George A. F., “The Book of Daniel,” Charles M. Laymon ed., *Interpreter’s One Volume Commentary on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1971, 436-450.
- Kooij, Arie van der, “The City of Babel and Assyrian Imperialism: Genesis 11:1-9 Interpreted in the Light of Mesopotamian Sources,” André Lemaire ed., *Congress Volume Leiden 2004*, Brill: Leiden, 2006, 1-17.
- Kristeva, Julia, “Word, Dialogue and Novel,” Toril Moi, ed., *The Kristeva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34-61
- Koch, Klaus, *Dani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5.
- Kronfeld, Chana, “Allusion: An Israeli Perspective,” *Prooftexts*, 5:2 (1985), 129-140.
- , *On the Margins of Modernism: Decentering Literary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 Kugel, James, *Traditions of the Bible: A Guide to the Bible As it Was at the Start of the Common Era*,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Lacocque, André, *The Book of Daniel*, Atlanta: John Knox Press, 1979.
- Lester, G. Brooke, “Daniel Evokes Isaiah: The Rule of the Nations in Apocalyptic Allusion-Narrative,”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6.
- Miller, Stephen. R., *Daniel*,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 Miner, Earl, “Allusion,” T. V. F. Brogan ed., *The New Princeton Handbook of Poetic Term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13-15.
- Mints, Alan, “On the Tel Aviv School of Poetics,” *Prooftexts*, 4:3 (1984), 215-235.
- Montgomery, James A., *The Book of Daniel*, Edinburgh: T. & T. Clark, 1927.

- Mulder, Martin Jan and Sysling, Harry, eds.,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sen: Van Gorcum, 1988.
- Plett, Heinrich F., ed., *Intertextuality*,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 Portier-Young, Anthea, *Apocalypse against Empire: Theologies of Resistance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11.
- Pucci, Joseph, *The Full Knowing Reader: Allusion and the Power of the Reader in the Western Literary Tra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8.
- Rad, Gerhard von, *Genesis: A Commentary*, trans. John H. Mark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 Rossing, Barbara R., "City Visions, Feminine Figures and Economic Critique: A Sapiential Topos in the Apocalypse," B. G. Wright III and L. M. Wills eds., *Conflicted Boundaries in Wisdom and Apocalypticism*, Leiden: Brill, 2006, 181-196.
- Sarna, Nahum M.,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1970.
- Sasson, Jack M., "Rehovot Ir," *Revue Biblique*, 90:1 (1983), 94-96.
- Schultz, Richard L., *The Search for Quotation: Verbal Parallels in the Prophe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Seow, C. L., *Dani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Sheriffs, Deryck C. T., "A Tale of Two Cities': Nationalism in Zion and Babylon," *Tyndale Bulletin*, 39:1 (1988), 19-57.
- Smith-Christopher, Daniel L., "The Book of Daniel," Leander E. Keck ed.,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Sommer, Benjamin D., "Exegesis, Allusion and Intertextuality in the Hebrew Bible: A Response to Lyle Eslinger," *Vetus Testamentum* 46:4 (1996), 479-489.
- Speiser, E. A., *Genesis*, New York: Doubleday, 1964.
- Steinmann, Andrew E., *Daniel*,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8.
- Steinmann, Jean, *Daniel: Texte français, Introduction et Commentaires*, Paris:

Desclée de Brouwer, 1961.

Toorn, K. van der and P. W. van der Horst, "Nimrod before and after the Bible," *Harvard Theological Review*, 83:1 (1990), 1-29.

Uehlinger, Christoph, *Weltreich und "eine Rede": Eine neue Deutung der sogenannten Turmbauerzählung (Gen. 11, 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Vogel, Winfried, *The Cultic Motif in the Book of Daniel*, New York: Peter Lang, 2010.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trans. John J. Scullion S.J.,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Wold, Benjamin G., *Women, Men, and Angels: The Qumran Wisdom Document Musar leMevin and its Allusions to Genesis Creation Tradition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Yamauchi, Edwin M., "Hermeneutical Issues in the Book of Daniel,"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3:1 (1980), 13-21.

Zadok, Ran, "The Origin of the Name Shinar,"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74:2 (1984), 240-244.

<초록>

##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

- 문학적 인유 이론으로 분석한 다니엘 1-2장의 창세기 10-11장 사용

김대웅

(총신대학교, 구약학)

본 논문은 제2 바벨론 제국 내 유대인 포로들의 신앙을 다룬 다니엘서가 자기의 신학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 창세기를 해석하여 사용한 방식들을 분석한다. 다니엘 1장과 2장은 문학적 인유를 활용하여 독자/청중인 유대인 포로들로 하여금 창세기 10장의 니므롯 기사 및 11장의 바벨탑 기사와 그 교훈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바벨론에게 유린당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도록 이끈다. 문학적 인유는 독립된 두 본문의 동시적 활성화를 위한 문학적 장치이며, “상호본문성,” “영향,” “반향,” “인용,” “사용,” “모방,” “표절,” “인유,” “미드라쉬,” “성경 내적 주석/해석” 등 본문간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술어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은 대홍수 이후 바벨을 다룬 창세기의 본문들이 다니엘 1장과 2장의 서사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바벨론에 유수하던 유대인 독자/청중의 현실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니엘은 그의 동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주의에 굳건히 대응하여 신실한 정체성을 고수하도록 고무했고, 이 목적을 위해 창세기의 바벨 이야기에 사용된 다양한 언어와 주제들을 다시

사용하거나 확장하거나 혹은 창조적으로 변형하였다. 특히 공용 언어 모티프, 절대 주권, 인간 정치학의 반역적 본질, 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등은 환기되는 본문(창세기 10장, 11장)과 암시하는 본문(다니엘 1장, 2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논자는 다니엘의 문학적 인유의 분석 절차를 주요 신호와 보조 신호 분석, 그리고 인유의 최대 활성화로 구분한 다음, 그 절차에 따라 다니엘 1장과 2장의 인유를 해석함으로써 포로기 바벨론 지역 유대인들의 신앙과 현실 이해가 그들의 성경 해석 위에 굳건히 근거했음을 입증한다.

<Abstract>

## The Babel Imperialism and the Divine Sovereignty:

An Investigation of the Literary Allusions in Daniel 1 and 2 to  
Genesis 10 and 11

Daewoong Kim  
(Chongsh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literary allusions in Daniel 1 and 2 to Genesis 10 and 11. I define “allusion” as a literary device for simultaneous activation of two separate text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allusion” differs in many points from other technical terms that are designed to describe varying textual relationships: “intertextuality,” “influence,” “echo,” “quotation/citation,” “mimesis/imitation,” “plagiarism,” “midrash,” and “inner-biblical interpretation/exege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author of the book of Daniel (i.e., Daniel) interpreted Genesis to shape his theology for the exiled Jews in Babylon in the sixth century B.C. Through the literary allusions, Daniel actualized the themes and topics of the account of the Tower of Babel in Genesis in his new composition. I argue that Daniel inspired his Jewish readers/audiences to resist steadfastly to imperialism hostile to the God of Israel, while recycling, expanding, or transforming the details of the Tower of Babel story in Genesis. Particularly remarkable is that the motif of universal language, absolute dominion, rebellious nature of human politics, and divine triumph over Bebel, resurfaces in Daniel 1 and 2 (alluding texts) in such a way to highlight the strong consonance with Genesis 10 and 11 (evoked texts). In doing so, Daniel, on the one hand, helps Jewish Diaspora in Babylon both to identify itself as God’s true people and to resist the Babylonian imperialism under the control of the divine

258 김대웅 |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

sovereignty.